

남구 옛 청사 '주인찾기' 쉽지 않네

최영호 청장 "이번 유찰되면 재입찰 않겠다"

매각 난항 '꼴머리'...공영개발 등 다각 검토

광주시 남구가 난항을 겪고 있는 봉선동 옛 남구청사 부지(토지 1만 8964㎡·건축면적 9975㎡) 매각과 관련, 입찰 대신, 공영 개발 방식을 검토했다. 유찰이 계속되면서 예상가격이 낮아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해석되지만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

최영호 남구청장은 1일 정례 조회에서 "이달 중순 예정된 옛 남구청사 부지 매각을 위한 공개 입찰이 유찰될 경우 더 이상 실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대신, "만일 응찰자가 나오지 않는다면 광주도시공사 등과 협약을 체결, 공영개발 등 별도 방안을 수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매각 예상 가격을 크게 낮추면서까지 매각하지 않겠다는 얘기다.

남구는 지난 2월부터 두 차례에 걸쳐 주차장 부지를 제외한 옛 남구청사에 대한 매각 절차를 밟았지만 모두 유찰됐다. 3차 입찰의 경우 최초

찰에 나설 예정으로 이마저 유찰되면 주후 재입찰 진행 시 예상 가격은 더 낮아질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애초 주거지역인 부지를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요청, 준주거지역으로 바꿔 토지 활용성을 높인 만큼 가격을 낮추지 않더라도 충분히 사업자를 찾아 개발이 가능하다는 게 청장 입장이다.

그러나 남구 의지대로 이뤄질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5개 자치구 중 재정 협력이 가장 열악한 점을 고려하면 남구 주도 공영 개발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광주도시공사도 사업 여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에서 선뜻 남구의 입장대로 진행할 가능성도 높지 않다.

/박정기자 halo@kwangju.co.kr

다. 남구 내부에서 조차 최 청장의 공영 개발 발언이 무슨 사업을 염두에 두고 있는지 파악하지 못한 상태다.

일각에서 부지 매각 예상 금액을 낮추려는 건설업체 등 매수 의향자들을 향한 '업포' 아니겠나는 시각이나오는 이유다.

매각이 차질을 빚으면서 애초 청사 부지 매각 대금을 공공 편익시설 확충, 어린이공원 조성, 장학기금 출연 등에 활용할 계획이던 남구 구상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한편, 남구는 이달 중순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 시스템을 통해 구 청사에 대한 3차 매각 입찰 공고를 낼 방침이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5·18피해 트라우마 치유

'집단상담' 결과 첫 공개

5·18민주화운동 당시 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첫 집단상담 결과가 공개된다.

1일 광주트라우마센터에 따르면 오는 3일 오후 2시부터 광주도시공사 13층에서 '5·18민주화운동 트라우마, 치유의 첫발을 내딛다'를 주제로 밤 표회가 열린다. 이날 밤표회에는 5·18 민주화운동 참여자, 광주시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5·18 민주화운동 트라우마의 특징과 후유증, 치유와 트라우마센터의 의미 등을 발표한다. 5·18로 인해 고문 등 가혹행위를 겪은 5·18구속부상자회 회원 7명으로 구성된 1기 집단상담대상자들은 지난해 11월 2일부터 지난 1월 4일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상담을 받았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우산 챙기세요

오전까지 비온 후 구름 많겠다.

광 주	흐리고 한때 비	8/11°C
목 포	흐리고 한때 비	6/8°C
여 수	흐림	9/14°C
나 주	흐리고 한때 비	7/11°C
완 원	흐리고 한때 비	8/10°C
구 레	흐리고 한때 비	7/14°C
강 전	흐리고 한때 비	7/10°C
해 남	흐리고 한때 비	7/9°C
장 풍	흐리고 한때 비	7/11°C
순 천	흐리고 한때 비	6/13°C
영 광	흐리고 한때 비	7/9°C
진 도	흐리고 한때 비	8/9°C
전 원	흐리고 가끔 비	8/10°C
군 산	흐리고 가끔 비	6/8°C
남 원	흐리고 가끔 비	6/10°C
흑 산	흐리고 한때 비	6/7°C

〈오전〉 비다	풍향	파고	식중독자수	지역선택자수	김기자수
서해 남부 일비다	서~북서	1.0~2.0m 1.5~2.5m			
남해 서부 일비다	서~북서	0.5~1.5m 1.0~2.0m			

〈오후〉 비다	풍향	파고	밀물	썰물
서해 남부 일비다	북서~북	1.5~2.5m 2.0~4.0m	06:30 18:33	11:32 23:42
남해 서부 일비다	서~북서	1.0~2.0m 1.5~2.5m	00:59 13:07	07:09 19:11

◇주간날씨

날짜	3(수)	4(목)	5(금)	6(토)	7(일)	8(월)
최저/최고	5/18 6/22	6/22 7/20	7/20 9/12	9/12 5/9	5/9 4/15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광주지방기상청)

검찰 고위간부 '인사태풍' 부나

서울중앙지검장 등 집단사퇴...내주중 후속인사 관심

체동육 검찰총장 내정자의 인사문화를 앞두고 검찰 고위간부들이 잇따라 사의를 표명, 검찰 조직에 대대적인 물갈이 인사가 예고되고 있다. 예상치 못한 '집단 사퇴'로 고검장급은 사실상 전면 교체가 불가피해졌다.

채 내정자는 사법연수원 14기(보다 한 기수 아래인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15기))이 1일 전격 사의를 표명한 데 이어 최 지검장과 동기인 김홍일 부산고검장과 이창세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장, 송혜은 사법연수원 부원장도 사의를 밝혔다.

채 내정자는 동기인 김진태 대검 차장과 노현근 법무연수원장을 이미 사직하거나 사의를 표시했다. 최 지검장을 비롯해 15기 4명이 동반 퇴진하기로 함에 따라 검찰 고위간부 인사 폭이 예상보다 훨씬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의 응답과 관심을 끄는 이유는 검찰 내 최고 요직인 서울중앙지검장이 포함된 데다 검찰 인사구조 전체를 뒤흔드는 변수가 됐기 때문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15기들의 집단 사퇴 배경을 놓고 총장 청문회(2일) 및 취임 일정, 이어질 검찰개혁 작업 등에 맞춰 진퇴 기로에 놓인 검찰 간부들에게 '모종의 사인'이 전달된 게 아니라는 관측도 있다. 이로써 후속 검찰 인사는 '미풍'에서 '태풍' 수준으로 전락될 가능성이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15기들의 집단 사퇴 배경을 놓고 총장 청문회(2일) 및 취임 일정, 이어질 검찰개혁 작업 등에 맞춰 진퇴 기로에 놓인 검찰 간부들에게 '모종의 사인'이 전달된 게 아니라는 관측도 있다. 이로써 후속 검찰 인사는 '미풍'에서 '태풍' 수준으로 전락될 가능성이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15기들의 집단 사퇴 배경을 놓고 총장 청문회(2일) 및 취임 일정, 이어질 검찰개혁 작업 등에 맞춰 진퇴 기로에 놓인 검찰 간부들에게 '모종의 사인'이 전달된 게 아니라는 관측도 있다. 이로써 후속 검찰 인사는 '미풍'에서 '태풍' 수준으로 전락될 가능성이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15기들의 집단 사퇴 배경을 놓고 총장 청문회(2일) 및 취임 일정, 이어질 검찰개혁 작업 등에 맞춰 진퇴 기로에 놓인 검찰 간부들에게 '모종의 사인'이 전달된 게 아니라는 관측도 있다. 이로써 후속 검찰 인사는 '미풍'에서 '태풍' 수준으로 전락될 가능성이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15기들의 집단 사퇴 배경을 놓고 총장 청문회(2일) 및 취임 일정, 이어질 검찰개혁 작업 등에 맞춰 진퇴 기로에 놓인 검찰 간부들에게 '모종의 사인'이 전달된 게 아니라는 관측도 있다. 이로써 후속 검찰 인사는 '미풍'에서 '태풍' 수준으로 전락될 가능성이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15기들의 집단 사퇴 배경을 놓고 총장 청문회(2일) 및 취임 일정, 이어질 검찰개혁 작업 등에 맞춰 진퇴 기로에 놓인 검찰 간부들에게 '모종의 사인'이 전달된 게 아니라는 관측도 있다. 이로써 후속 검찰 인사는 '미풍'에서 '태풍' 수준으로 전락될 가능성이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15기들의 집단 사퇴 배경을 놓고 총장 청문회(2일) 및 취임 일정, 이어질 검찰개혁 작업 등에 맞춰 진퇴 기로에 놓인 검찰 간부들에게 '모종의 사인'이 전달된 게 아니라는 관측도 있다. 이로써 후속 검찰 인사는 '미풍'에서 '태풍' 수준으로 전락될 가능성이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15기들의 집단 사퇴 배경을 놓고 총장 청문회(2일) 및 취임 일정, 이어질 검찰개혁 작업 등에 맞춰 진퇴 기로에 놓인 검찰 간부들에게 '모종의 사인'이 전달된 게 아니라는 관측도 있다. 이로써 후속 검찰 인사는 '미풍'에서 '태풍' 수준으로 전락될 가능성이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15기들의 집단 사퇴 배경을 놓고 총장 청문회(2일) 및 취임 일정, 이어질 검찰개혁 작업 등에 맞춰 진퇴 기로에 놓인 검찰 간부들에게 '모종의 사인'이 전달된 게 아니라는 관측도 있다. 이로써 후속 검찰 인사는 '미풍'에서 '태풍' 수준으로 전락될 가능성이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15기들의 집단 사퇴 배경을 놓고 총장 청문회(2일) 및 취임 일정, 이어질 검찰개혁 작업 등에 맞춰 진퇴 기로에 놓인 검찰 간부들에게 '모종의 사인'이 전달된 게 아니라는 관측도 있다. 이로써 후속 검찰 인사는 '미풍'에서 '태풍' 수준으로 전락될 가능성이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15기들의 집단 사퇴 배경을 놓고 총장 청문회(2일) 및 취임 일정, 이어질 검찰개혁 작업 등에 맞춰 진퇴 기로에 놓인 검찰 간부들에게 '모종의 사인'이 전달된 게 아니라는 관측도 있다. 이로써 후속 검찰 인사는 '미풍'에서 '태풍' 수준으로 전락될 가능성이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15기들의 집단 사퇴 배경을 놓고 총장 청문회(2일) 및 취임 일정, 이어질 검찰개혁 작업 등에 맞춰 진퇴 기로에 놓인 검찰 간부들에게 '모종의 사인'이 전달된 게 아니라는 관측도 있다. 이로써 후속 검찰 인사는 '미풍'에서 '태풍' 수준으로 전락될 가능성이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15기들의 집단 사퇴 배경을 놓고 총장 청문회(2일) 및 취임 일정, 이어질 검찰개혁 작업 등에 맞춰 진퇴 기로에 놓인 검찰 간부들에게 '모종의 사인'이 전달된 게 아니라는 관측도 있다. 이로써 후속 검찰 인사는 '미풍'에서 '태풍' 수준으로 전락될 가능성이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15기들의 집단 사퇴 배경을 놓고 총장 청문회(2일) 및 취임 일정, 이어질 검찰개혁 작업 등에 맞춰 진퇴 기로에 놓인 검찰 간부들에게 '모종의 사인'이 전달된 게 아니라는 관측도 있다. 이로써 후속 검찰 인사는 '미풍'에서 '태풍' 수준으로 전락될 가능성이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15기들의 집단 사퇴 배경을 놓고 총장 청문회(2일) 및 취임 일정, 이어질 검찰개혁 작업 등에 맞춰 진퇴 기로에 놓인 검찰 간부들에게 '모종의 사인'이 전달된 게 아니라는 관측도 있다. 이로써 후속 검찰 인사는 '미풍'에서 '태풍' 수준으로 전락될 가능성이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15기들의 집단 사퇴 배경을 놓고 총장 청문회(2일) 및 취임 일정, 이어질 검찰개혁 작업 등에 맞춰 진퇴 기로에 놓인 검찰 간부들에게 '모종의 사인'이 전달된 게 아니라는 관측도 있다. 이로써 후속 검찰 인사는 '미풍'에서 '태풍' 수준으로 전락될 가능성이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15기들의 집단 사퇴 배경을 놓고 총장 청문회(2일) 및 취임 일정, 이어질 검찰개혁 작업 등에 맞춰 진퇴 기로에 놓인 검찰 간부들에게 '모종의 사인'이 전달된 게 아니라는 관측도 있다. 이로써 후속 검찰 인사는 '미풍'에서 '태풍' 수준으로 전락될 가능성이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15기들의 집단 사퇴 배경을 놓고 총장 청문회(2일) 및 취임 일정, 이어질 검찰개혁 작업 등에 맞춰 진퇴 기로에 놓인 검찰 간부들에게 '모종의 사인'이 전달된 게 아니라는 관측도 있다. 이로써 후속 검찰 인사는 '미풍'에서 '태풍' 수준으로 전락될 가능성이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15기들의 집단 사퇴 배경을 놓고 총장 청문회(2일) 및 취임 일정, 이어질 검찰개혁 작업 등에 맞춰 진퇴 기로에 놓인 검찰 간부들에게 '모종의 사인'이 전달된 게 아니라는 관측도 있다. 이로써 후속 검찰 인사는 '미풍'에서 '태풍' 수준으로 전락될 가능성이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15기들의 집단 사퇴 배경을 놓고 총장 청문회(2일) 및 취임 일정, 이어질 검찰개혁 작업 등에 맞춰 진퇴 기로에 놓인 검찰 간부들에게 '모종의 사인'이 전달된 게 아니라는 관측도 있다. 이로써 후속 검찰 인사는 '미풍'에서 '태풍' 수준으로 전락될 가능성이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15기들의 집단 사퇴 배경을 놓고 총장 청문회(2일) 및 취임 일정, 이어질 검찰개혁 작업 등에 맞춰 진퇴 기로에 놓인 검찰 간부들에게 '모종의 사인'이 전달된 게 아니라는 관측도 있다. 이로써 후속 검찰 인사는 '미풍'에서 '태풍' 수준으로 전락될 가능성이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15기들의 집단 사퇴 배경을 놓고 총장 청문회(2일) 및 취임 일정, 이어질 검찰개혁 작업 등에 맞춰 진퇴 기로에 놓인 검찰 간부들에게 '모종의 사인'이 전달된 게 아니라는 관측도 있다. 이로써 후속 검찰 인사는 '미풍'에서 '태풍' 수준으로 전락될 가능성이 있다.